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1, pp.131-161
<https://doi.org/10.29212/mh.2019.111.4>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성주(星州) 전투

김종수*

1. 머리말
2.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와 경상우도의 방어실태
3. 『난중잡록』 을 통하여 본 성주 전투
4.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와 경상우도의 방어실태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경상도 성주 지역에서 전개된 전투의 실상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열흘만인 4월 23일 성주성은 함락된다. 이후 이듬해인 1593년 1월 15일 성주성을 수복하기까지 근 10개월 동안 성주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군과 왜군

*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성주성은 임진왜란 초기 왜군이 번성(藩城)으로 삼았던 곳으로서, 경상도 지역의 침략을 담당하였던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의 통솔 하에 왜군 주둔의 거점이자 이들의 수송과 보급 선상에 있었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리고 또 성주 지역은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 조선으로서도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역의 방어를 위해 서라도 하루빨리 수복해야 하는 곳이었다. 이에 성주 지역에는 10개월 동안 십여 차례의 전투가 있었다. 그런데 성주 전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출된 논문은 단 1편뿐인 실정으로¹⁾,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 성과가 요구되는 부문이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의 방어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전기 방어체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전기의 방어체제는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크게 구분된다.²⁾ 평시체제는 5위로 이루어진 중앙군과 진관체제로 편제된 지방군이 평상시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전시에는 이들이 다시 전시체제로 재편되어 전투에 나서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평시체제의 지휘관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자신이 평소에 선발하고 훈련한 군인들을 직접 지휘할 수는 없었고, 전시에는 중앙에서 별도로 임명받아 내려온 순변사, 방어사, 조방장, 도원수 등의 지휘관으로 하여금 군대를 통솔하게 하였다. 군대를 이처럼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신라와 고려시대 때에도 있었던 일이다.³⁾ 그런데 조선왕조에 들어와 평시체제와 전시체제의 운영은 더욱 철저하고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
- 1) 신윤호, 「임진왜란기 성주전투와 일본군의 동향」 『역사학연구』 53, 2014.
 - 2) 평시체제와 전시체제에 대해서는 김중수,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응치·이치 전투」 『전북사학』 51호, 2017 ; 김중수, 『숙종시대의 군사체제와 훈련도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참조.
 - 3) 김중수, 「신라 중대 군제의 구조」 『한국사연구』 126, 2004. ; 김중수, 「고려시기 부병제의 운영과 그 원칙」 『역사교육』 73, 2000.

조선은 위화도 회군이라는 군사 쿠데타를 통하여 건국된 나라이기 때문에 역대 국왕들은 군사 문제에 대하여 그 무엇보다 신경을 썼다. 특히 태종은 병권에 대하여 대단히 예민한 왕이었다. 그는 병권이 곧 권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⁴⁾, 국왕이 확고하게 병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사병제를 혁파하고 공병제를 수립하였으며, 장군과 군인 간의 일체의 사적 관계를 철폐하려 하였다.⁵⁾ 그리고 이후 조선 정부에서는 군사 체제를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각각 구분하여, 전시에는 흑시라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에서 국왕이 직접 임명한 지휘관으로 하여금 군대를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에 전시체제 지휘관은 전시에 생면부지(生面不知)의 군사를 데리고 전장에 나서게 되었다.⁶⁾ 그리고 순변사, 방어사, 조방장, 도원수 등 전시체제 지휘관에는 국왕이 가장 신임하는 대신이 임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시체제를 서애 유성룡이 ‘제승방략’이라고 말하면서 심각한 오해가 발생하였다.⁷⁾ 즉 유성룡은 을묘왜변 때 제주목사 김수문이 진관체제를 고쳐 제승방략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4)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6월 20일 (癸丑). “태상왕(태조 이성계: 필자 주)께서 병권을 잡았기 때문에 고려 말에 능히 화가위국(化家爲國)할 수 있었다.”

5) 김종수, 「조선초기 중앙군제의 정비와 사병제 개혁」 『조선의 정치와 사회』, 집문당, 2002.

6) 『선조실록』 권74, 선조 29년 4월 10일 (丙午). 비변사는 여기에서 전시에 지휘관이 자신이 직접 훈련한 군사들은 데리고 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아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군사를 데리고 전장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7) 『선조수정실록』 권25, 선조 24년 10월 1일 (癸巳); 『선조실록』 권49, 선조 27년 3월 29일 (丁未).

“국초에는 각도의 군병(軍兵)을 모두 진관에 분속시켰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관이 속읍을 통솔하여 잘 정돈하고 있으면서 주장(主將)의 호령을 기다렸습니다. ... 그런데 지난 을묘왜변 이후 김수문(金秀文)이 전라도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분군법(分軍法)을 고쳐 도내의 여러 고을을 순변사·방어사·조방장·도원수 및 본도의 병사와 수사에게 나누어 소속시키고 이를 제승방략이라고 하였습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군이 패배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오해였다. 일개의 정3품 제주목사가 마음대로 조선의 방어체제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진관체제를 제승방략으로 고칠 수도 없었다. 진관체제는 평시체제로서 제승방략이라고 잘못 말한 전시체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즉 조선전기 방어체제의 원칙 상 평시체제가 전시체제로 변할 수 없듯이, 진관체제가 제승방략으로 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이러한 유성룡의 말을 근거로 하여 제승방략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제출되었다.⁸⁾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과 도체찰사를 지낸 유성룡의 말은 어느 누구도 감히 의심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있어 지금까지 아무도 그의 말의 진위를 따지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말도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조선전기 군사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와 경상도의 방어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본군이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전라도와 경상도의 대응 태세는 사뭇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는 진관체제로 이루어진 평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로써 왜군의 침략에 대항한 반면, 경상도는 조선전기 국가가 마련한 평시체제와 전시체제가 모두 무너진 상태에서 의병들이 전시체제를 형성하여 왜적의 방어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유력한 의병장들은 의병뿐만 아니라 관군까지 지휘하면서 국왕에 의하여 임명된 전시체제의 지휘관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성주 역시 경상우도 지역에 있었으므로 경상도의 방어체제와 동일한 실정이었다. 본 논문 2장에서는 임진왜란 초기 서로 다른 전라도와 경상우도의 방어 실태에 대하여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한편 본 논문의 3장에서는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의 방어 실

8) 허선도, 「제승방략 연구-임진왜란 직전 방위체제의 실상(상, 하)」 『진단학보』 36:37, 1973:1974.

태와 관련하여 성주 전투를 예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겠다. 성주 전투는 지금까지 이형석이 그의 책 『임진전란사』에서 1차, 2차, 3차 성주성 전투가 있었다고 서술한 이후⁹⁾, 다른 책이나 논문들에서도 대체로 이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성주 전투가 3차례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성주 전투에 관한 유일한 논문인 신윤호의 논문 역시 성주 전투가 3차례 있었다고 보고 있다.¹⁰⁾ 그러나 성주 전투는 3차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4월 23일 성주성을 일본군에게 빼앗긴 이후 의병들은 6월부터 성주성이 회복되는 1593년(선조 26) 1월까지 무려 18차례 이상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병들이 희생되었다. 본 논문 3장에서는 이러한 성주 전투를 『난중잡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겠다.

2.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와 경상우도의 방어실태

조선전기의 군사체제는 크게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구분된다. 치안 유지나 소규모 전란의 진압은 중앙과 지방에서 평시체제 하의 중앙군과 지방군이 각각 담당하였고, 대규모의 전쟁은 중앙군과 지방군이 통합하여 재편된 전시체제로 대처하였던 것이다. 평시체제 하의 지방의 방위체제는 진관체제로 운영되었다. 진관체제는 각 도 육·수군의 최고 책임자인 병마절도사¹¹⁾나 수군절도사의 주진(主鎭) 휘하에 몇 개의 거진(巨鎭)을 두고, 거진

9) 李炯錫, 『壬辰戰亂史』 中卷, 「제Ⅱ편 壬辰·癸巳 作戰期」,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482~605쪽.

10) 신윤호, 앞의 논문, 2014, 78쪽.

11) 병마절도사(병사)는 경기·강원도의 경우에는 중2품 관찰사가 例兼하였지만, 충청·전라·황해·평안도는 관찰사가 예겸하고 전임의 병사 1명을 두었고, 경상·영안도는 관찰사가 例兼하고 전임의 병사 2명을 두었다.

지역의 해당 지방관인 목사·부사가 절제사(節制使)나 첨절제사를 겸임하면서, 그 아래 제진(諸鎭)을 관할하게 하였다. 제진이 설치된 군현의 책임자인 군수·현령·현감 등은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절제도위(節制都尉)를 겸하면서 자기 지역의 방위를 책임졌다.¹²⁾ 진관체제를 성주가 속해있는 경상우도의 예를 들어 도식화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 1> 경상우도 진관체제 편성표¹³⁾

관찰사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 겸)			감영 : 상주		
主鎭			우도 병마절도사		
			우병영 : 창원		
巨鎭		諸鎭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상주 진관	상주 목사	성주목사 선산부사 금산군수		상주관관 성주관관 개령현감 지례현감 고령현감 문경현감 함창현감	
진주 진관	진주 목사	합천군수 초계군수 함양군수 곤양군수		진주관관 거창현감 사천현감 남해현령 삼가현감 의령현감 하동현감 산음현감 안음현감 단성현감	
김해 진관	김해 부사	창원부사 함안군수		거제현령 칠원현감 진해현감 고성현령 웅천현감	

이러한 진관체제 하에서 지방 각 진(鎭)은 각자 싸우고 각자 지키는 자전자수(自戰自守)를 원칙으로 하였다. 비록 외적이 침입하거나 내란이 일어나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각 진의 군사 책임자들은 다른 도(道)의 군사를 요청하거나 통솔할 수 없었다.¹⁴⁾ 자신의 지역은 자신의 군사로 책임지고 방어해야했던 것이다.

12) 민현구, 「IV. 진관체제의 확립과 조선초기 지방군제의 성립」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13) 『경국대전』 권4, 병진, 외관직.

14) 『성종실록』 216, 성종 19년 5월 10일(癸酉) “設鎭置兵 皆令自守自戰 不必皆藉他鎭之助”

평시체제 하의 중앙군과 지방군은 유사시에는 다시 전시체제로 재편되었다. 전란이 발생하였을 경우 진관체제 하의 지방군은 중앙군과 통합되어 전시체제의 출정군으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시체제 지휘관에는 국왕이 가장 신임하는 대신이 임명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조선 정부는 즉시 전시체제를 편성하여 이일을 순변사로 삼아 중로(中路)에 내려 보내고, 좌방어사 성응길을 좌도(左道)에, 우방어사 조경을 서로(西路)에 내려 보내고, 조방장 유극량과 변기로 하여금 각각 죽령과 조령을 지키게 하였다. 또한 좌의정 유성룡을 도체찰사로, 병조판서 김응남을 부체찰사로 삼는 한편, 한성판윤 신립을 도순변사로 삼아 충주로 파견하여 왜군을 저지하게 하였다.¹⁵⁾

그러나 순변사로 임명된 이일은 서울에서 중앙군 3백 명을 통솔하고 가려고 병조에 있는 군적[選兵案]을 살펴보았으나 모두 시정잡배나 아전, 유생이 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었다고 한다. 이에 이일은 왕명을 받은 지 3일이 지나도 떠나지 못하다가 할 수 없이 혼자 먼저 상주로 내려가고, 별장(別將) 유옥으로 하여금 뒤따라 군사를 수습하여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¹⁶⁾ 한편 왜군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은 경상감사 김수(金睟)는 경상도 여러 고을에 글을 보내, 각 고을의 수령들로 하여금 자기 고을의 군사를 인솔하여 전시체제 하의 신지(信地)에 주둔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문경 새재 이남에 있는 지방 수령들은 각각 군사를 이끌고 대구에 집결하였는데, 이 당시 군사들은 모두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로서 순변사만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15) 『선조수정실록』 26, 선조 25년 4월 14일(癸卯) “啓請以李鎰爲巡邊使 竹嶺 邊躉爲助防將 守烏嶺 … 上召問礪 礪亦不辭 遂以爲都巡邊使” 下中路 成應吉爲左防禦使 下左道 趙徹爲右防禦使 下西路 劉克良爲助防將 守

16) 유성룡, 『장비록』 권1, 선조 25년 4월 17일. “李鎰欲率京中精兵三百名去 取兵曹選兵案視之 皆閭閻市井白徒 胥吏·儒生居半 臨時點閱 儒生具冠服持試卷 吏戴平頂巾 自懇求免者 充滿於庭 無可遣者 鎰受命三日不發 不得已令鎰先行 使別將俞沃 隨後領去”

와중에 왜군의 습격을 받아 군사들이 흩어지고, 수령들 또한 모두 달아나버린 후에야 순변사 이일이 상주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일 역시 왜군의 습격을 받아 패배하였다.¹⁷⁾ 상주에서 승리한 왜군은 다시 문경새재를 넘어 도순변사 신립이 있는 충주로 들이닥쳐 신립 군을 격파하고 곧바로 서울로 진격하였다.

이와 같이 20만 대군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전기의 군사체제는 속수무책으로 붕괴되었다. 평시체제로 왜군과 대면하였던 부산진과 동래성은 대규모의 왜군 앞에서 자전자수(自戰自守)를 고수하였으나 하루 사이에 각각 격파당하고 전멸되었다. 또 전시체제에 따라 중앙에서 긴급히 파견된 순변사이일과 도순변사 신립도 상주와 충주에서 모두 격파되었다. 상주에서의 패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정에서는 우의정 이양원을 경성도감찰사(京城都檢察使), 박충간을 도성감찰사, 이성중을 수호사, 변언수를 유도대장(留都大將) 등으로 삼아 도성을 지키게 하고, 김명원(金命元)을 도원수에, 신각(申恪)을 부원수에 임명하여 한강을 수호하게 하였다.¹⁸⁾ 그러나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왜군의 기세 앞에서 서울과 한강 방어는 모두 허사로 끝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평시체제와 전시체제가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왜군을 피하여 정신없이 북쪽으로 피난가고 있는 조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이미 순변사이일과 도순변사 신립이 격파된 상황에서 또 다시 전시체제에 따른 지휘관을 재차 편성하여 내려보낼 수도 없었다.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를 고려할 것 없이 각 지역에서 책임지고 왜군을 물리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 초기 방어체제와 관련하여 이와 같이 조정으로부터 아무런 특별한 조치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대응 태세는 사뭇 달랐다. 전라도는 평시체제를 그대로 유지

17)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8) 『선조실록』 26, 선조 25년 4월 17일 (丙午)

하면서 이로써 전시 상황에 대처하였다. 원래는 평시체제의 지휘관이 전시에 자기 휘하의 군대를 통솔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정에서 전시체제의 지휘관을 내려 보내지 않자 평시체제의 지휘관인 전라감사가 전라도 진관군사들을 통솔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을묘왜변이 일어난 1555년(명종 10)에 경상도와 전라도에 한하여 관찰사가 순찰사를 겸임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면서¹⁹⁾, 전라도 관찰사가 자신의 진관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경상도에서는 평시체제와 전시체제가 모두 붕괴됨에 따라 각처의 사족들이 의병장이 되어 산졸(散卒)들을 수습하여 왜적 퇴치에 나섰다. 그런데 이러한 의병 조직은 전시체제와 유사한 형태를 띠었다. 즉 조정에서 파견된 전시체제의 지휘관이 부재(不在)한 상황에서 의병장들이 전시체제의 지휘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왜적을 퇴치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라도관찰사 겸 순찰사 이광(李洸)은 경상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의 침입 소식을 듣고도 처음에는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광주목사 정윤우(丁允祐)가 이러한 이광의 태도를 비난하며 즉시 근왕(勤王)의 군대를 출동시킬 것을 역설하였고, 전라도 사람들 역시 왜군의 침입에도 복지부동하고 있는 이광의 행동에 분통해 하였지만, 이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이광은 국왕으로부터 내려온 징병령의 교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전라도 각 진관 군사를 징발하여 근왕군을 편성하여 서울로 향하여 올라갔다.²⁰⁾ 그런데 이광은 5월 4일 공주(금강) 근처에서 서울이 왜군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곧 회군하였다.²¹⁾ 이때에

19) 『명종실록』 19, 명종 10년 10월 18일 (己卯)

20) 『난중잡록』 1, 壬辰年 6월.

21) 『국역 대동야승 VI』, 『난중잡록 1』, 임진년 5월 4일, 민족문화추진회, 1985, 358쪽.

도 여러 수령들이 그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이광은 듣지 않았고, 또 군사들은 회군하면서 이광은 국왕의 호위에는 뜻이 없고, 단지 우리들을 고생시키기 위해 징발하였다고 원망했다고 한다.²²⁾ 이와 같이 공주(금강) 부근에서 회군한 것은 이광이 왕명이 없이는 자신의 관할 구역을 넘어서려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광은 2년 6개월 전에 전라도에서 벌어진 정여립 사건을 목도하고, 또 이를 직접 처리한 사람이다.²³⁾ 따라서 정여립처럼 국왕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군사 행동은 언제든지 반역으로 몰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었다.²⁴⁾ 이에 이광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왕의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군사를 징병하거나, 자신이 맡은 관할 범위를 벗어나 군사를 출병시키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광이 이끄는 근왕군이 공주에서 회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국왕은 세사시강원 관리인 심대(沈岱)를 보내어 이광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즉시 다시 기병(起兵)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순찰사 이광은 전라도 전역에 제2차 징병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 번째의 징병은 쉽지 않았다. 지난번 공주까지의 행군 과정에 많은 고통을 겪었던 군인들이 이에 응하기를 꺼렸던 것이다. 2차 징병령에 반발한 옥과·순창의 관군들은 형대원(邢大元)과 조인(趙仁)을 우두머리로 삼아 순창의 관청 건물을 불 지르고 감옥

『임진록』 1. “全羅監司李洸 兵潰於錦江 李洸領兵七萬 勤王行到錦江 聞訛言 遽令破陣 諸軍潰散

22) 송정현, 「임진왜란 초기 호남의병의 봉기와 활동양상」 『임진왜란과 전라 좌의병』, 보고사, 2011, 12쪽.

23) 『선조수정실록』 24, 선조 23년 3월 1일(壬寅).

24)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전라도 지역에는 정여립 사건이 발발하여 1천여 명의 인사가 처형되었다. 정여립은 국왕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동계 등을 조직하여 손죽도에 침입한 왜적을 물리치는 등 군사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후에 역모를 피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죽었다. 이후 정여립과 관련된 인사 1천여 명이 처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중수,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웅차·이치 전투」 『전북사학』 51, 2017. 참조.

을 부수기도 하였다.²⁵⁾ 또 남원·구례·순천 등지에서 올라오던 군사 8천여 명도 삼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²⁶⁾ 이와 같이 동원된 군사들이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전라감사 이광은 4만의 군사는 자신이 직접 지휘하고, 2만의 군사는 방어사 곽영(郭嶸)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면서 다시 북상하였다. 여기에 경상순찰사 김수(金睟)와 충청순찰사 윤국형(尹國馨)의 군사가 합류하였다.

제2차 근왕군은 전라·경상·충청 3도 연합군의 성격을 띠면서 6만 대군의 규모를 형성하여 6월초에 경기도 용인 경내까지 북상하였다. 그런데 2차 근왕군은 국왕의 재 기병 명령에 급조된 군대로서, “행군할 즈음에 군사들은 마치 양을 몰아 풀을 먹이는 것 같이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통일성이 없었다.”²⁷⁾라고 하듯이 지리멸렬하여 전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이광은 자신의 관할 구역이 아닌 경기도에서의 전투에 극히 불안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광은

신들이 기병·보병 6만여 인을 거느리고 이달 3일에 수원(水原)에 진을 쳤는데 양천(陽川) 북포(北浦)를 경유하여 군사를 건너려고 합니다. 앞뒤 양쪽에서 들이치는 계책을 조정에서 급속히 지휘해주소서.²⁸⁾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군대의 행진 상황을 조정에 보고하면서 지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북상하고 있는 일본군에 쫓겨 황급히 피난 가고 있는 조정으로부터 신속한 지휘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6만의 대군이 겨우 1,600여 명에 불과한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 휘하의 일본 수군과의 접전에서 제대로 전투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궤멸되고 말았다.²⁹⁾ 조정에

25) 『선조수정실록』 26, 선조 25년 5월 1일 (庚申).

26) 『국역 대동야승 VI』, 「난중잡록 1」, 임진년 5월 20일, 368쪽.

27)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3, 임진 8월.

28) 『선조실록』 27, 선조 25년 6월 21일 (己酉). “洗又庸怯不知兵 行師之際 有如驅羊就牧 散亂無統 首尾不相知”

서는 이후 용인전투 패배의 책임을 물어 이광을 파직시키지만, 이광은 자신의 관할 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왕명이 내려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광은 용인에서 후퇴하여 군졸을 이끌고 6월 15일 경 전주로 돌아왔다.³⁰⁾ 그런데 이광은 왜군이 서울을 점령한 이후 조선 팔도에 군정(軍政)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다시 전라도로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적극적으로 호남 방어에 나서게 된다. 즉 6월 중순에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가 통솔하는 일본군은 경상도 성주·김산과 충청도 영동 등을 거쳐 무주와 금산 방면으로 진격하며 전라도를 위협하고 있었다. 호남지역이 위기상황에 몰리자, 전라감사 이광은 전라도 관군을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에 배치하여 경계 근무에 임하도록 하였다. 먼저 광주목사 권율, 전라도 조방장 이유의, 남원판관 노종령 등을 남원에 배치하여 경상도로부터 들어오는 적을 막게 하였고, 장수 육십령 지역에는 이계정을 배치하여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동북현감 황진, 나주판관 이복남과 김제군수 정담 등으로 하여금 웅치와 이치의 험한 곳을 지키게 하여 대비하였다.³¹⁾ 이와 같은 이광의 활약에 의해 결국 전라도 땅에는 일본군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광은 전시체제가 아닌 평시체제를 그대로 이용하여 일본군의 침입을 방어했던 것이다.³²⁾

이에 반해 경상도는 일본군의 침략과 동시에 평시체제와 전시

29) 김경태, 「임진전쟁 초기 이광의 활동과 용인전투에 대한 재고」 『사총』 89, 2016.

30) 하태규,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방어」 『韓日關係史研究』 26집, 2007, 157쪽.

31) 『宣祖修正實錄』 26, 선조 25년 6월 1일(己丑) “倭賊犯全羅·忠清郡縣初湖南兵潰 歸本道 列邑洶洶 … 洗卽牒 慄爲都節制使 進守湖嶺之界 於是 分布防禦使郭嶸·同福縣監黃進·全州義兵將黃璞·羅州判官李福男·金堤郡守鄭湛于熊峴·梨峴等關隘 以防賊入”

32) 김중수,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웅치·이치 전투」 『전북사학』 51, 2017.

체제가 모두 붕괴되어 버렸다. 경상도 전역에 왜적의 침략 사실이 알려지자 지방 수령은 도주하고 백성들은 피난가기 시작하였다. 임란 발발 직후 경상도 지역의 관군과 수령의 동태는 다음 자료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좌병사 이각은 소산역에서 진을 치고 적을 막으려 하다가 밀양성의 함락을 보고 놀라서 멀리 도망가 버렸다. 본영의 좌수사 박홍도 영사에 불 지르고 멀리 달아나 버렸다. 여러 장수가 무너지고 사졸들이 새떼같이 흩어져버렸다. 적은 무인지경을 가는 것 같았다.³³⁾

창원군수 장의국은 성을 버리고 달아나고, 우후 이협은 병기를 연못에 던지고 군량창고를 불사르고 성문을 열어 먼저 숨어 버리니 모든 진영과 모든 고을의 수령들이 일시에 다 도망갔다. 의령군수 오응창은 처음 김해로 나아가다 배가 침몰하여 정병 100여 인을 익사케 하고 군량과 병기를 모두 잃고는 간 곳을 알지 못하고, 창령군수 이철용과 현풍군수 유덕신은 순찰사의 전령으로서 모두 고을을 버리고 도망갔다.³⁴⁾

이와 같이 지방 수령이 도주하고 사졸들이 새떼같이 흩어지면 서 경상도의 평시체제는 무너져버렸다. 경상감사 김수가 그나마 잔존한 평시체제 상의 각 고을 군사를 이끌고 전시체제에 따른 약속 장소인 대구에 집결하였다가 왜적의 습격을 받아 무너지고, 상주에 가서 순변사 이일을 만났지만 이마저도 왜적의 야습으로 패배하면서 전시체제 역시 무너져버렸다. 이와 같이 평시체제와 전시체제가 모두 붕괴하였지만, 조정에서는 또 다른 전시체제의 지휘관을 내려 보내거나 하는 등의 별도의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 이에 경상도의 사족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스스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의병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33) 이탁영, 『譯註 征蠻錄』, 4월 17일. “左兵使李珣 蘇山驛 結陣遏截 驚見 留城之陷 自知難當遠走 本營 左水使朴泓 自焚營舍 亦走出 諸將瓦解 士卒鳥散 故如入無人之境”

34) 이로, 『용사일기』 (전규태 역주, 을유문화사, 1974), 32쪽.

경상우도 지역에서 의병이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달인 5월에 들어서였다. 곽재우가 의령(宜寧)에서 처음으로 의병을 조직한 것은 4월 하순 무렵이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곽재우는 급속히 진격해오는 왜군으로부터 고을을 지키기 위해 가동(家僮) 10여 인을 거느리고 개인 사재를 내어 용사 수십 명을 모집하여 급히 의병 부대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곽재우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우도의 의병은 대체로 초유사로 임명된 김성일의 주도하에 각처의 사족들이 이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조직된 것이었다.³⁵⁾ 김성일이 초유사로 임명되어 경상도 함양으로 들어온 것은 5월 4일이었다. 김성일은 함양에 도착한 즉시 경상우도의 여러 고을에 1~2인의 소모유사(召募有司)를 임명하여 주위의 군병을 모으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격문을 발표하여 의병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제 보건대, 도망하여 무너진 병졸들이 산골짜기에 가득 차 있다. 처음에는 비록 몸을 빼서 살 길을 구한 것이나, 마침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알게 되자, 모두 분발하여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특히 아직 창의(倡義)하는 이가 없을 따름이다. 이때를 당해서 만약 한 사람의 의사라도 있어 분기하여 창의하면 원군의 군사들이 모여들어 향응(響應)할 것을 앉아서도 예측할 수 있다.³⁶⁾

이러한 김성일의 종용으로 경상우도의 유력 인사인 김면과 정인홍은 5월 10일 합천의 송산동에서 회합하여 의병의 기병을 논의하게 된다.³⁷⁾ 이후 김면은 곧바로 자신의 근거지인 고령에서 정예 군병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5월 22일에는 인근 고을인 의령, 함양, 산음, 단성, 삼가 등에도 기병유사(起兵有司)를 선정하여 군병을 추가로 모집하였다. 그리고 김면은 성주와 초계에 머

35)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 『역사와 현실』 64, 2007, 41쪽.

36) 이로, 『용사일기』 (전규태 역주, 을유문화사, 1974), 46쪽.

37) 정경운, 『고대일록』, 임진년 5월 10일.

물고 있는 왜적이 날로 성하니, 속히 일어나 힘을 합쳐 왜적을 몰아내자고 호소하였다.³⁸⁾

이 시기 소모유사들의 노력으로 확보된 군병들은 주로 낙오된 관군 출신자인 ‘산졸(散卒)’로 보인다.³⁹⁾ 당시 경상도 지역 각처에는 낙오병들이 다수 발생하여 자신들이 사는 고을 주변의 산 골짜기에 흩어져 숨어살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는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의 급속한 진격으로 인해 평시체제의 지휘부는 와해되었지만 대부분의 관군 병사들은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전시체제에 따라 대구에 모이기로 한 경상도 군사들의 경우도 일본군과 대면하기는 하였지만 직접 전투하지도 못하고 와해되었으므로 피해자는 거의 없었다.⁴⁰⁾ 이와 같이 다수의 낙오된 군병들이 각처에 흩어져있는 상황에서 소모유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들을 수합하면서 의병 부대는 신속하게 병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합천에서 기병한 정인홍 부대의 경우 6월 초순경에는 정병 수백 명과 창군(槍軍) 수천 명을 확보하고 있었다.⁴¹⁾ 의령의 광재우 부대도 처음에는 가동 10여 명과 모집한 장사(壯士) 50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초계(草溪) 등 주변에 흩어져 있는 관군을 모아 전체 군병의 수가 수백 명에 이르렀다. 이에 더하여 김성일의 지시로 삼가(三嘉)의 군사가 광재우 부대에 편입되면서 전체 병력은 2천여 명에 달하였다.⁴²⁾ 고령에서 기병한 김면 부대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가동이나 거창의 산척(山尺) 약간 명으로 출발하였으나 곧 여러 지역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4, 5일 만에 군사 2천여 명을 모을 수 있었다.⁴³⁾ 이와 같이 경상우도의

38) 정경운, 『고대일록』, 임진년 5월 22일.

39) 노영구, 앞의 논문, 2007, 41쪽.

40) 조정, 『임란일기』, 임진년 4월 24일 ; 노영구, 앞의 논문, 2007, 42쪽 재인용.

41) 고석규, 「내암 정인홍의 의병활동」 『남명학연구』 2, 1992, 43쪽.

42) 『국역 대동야승 VI』, 「난중잡록 1」, 임진년 4월 22일, 339쪽.

의병장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의병 부대의 규모가 단기간 내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평시체제가 붕괴하면서 흩어진 군졸들을 의병 부대에 편입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⁴⁴⁾

평시체제 하의 군졸들을 수습하여 형성된 의병부대는 비록 국왕으로부터 임명받은 지휘관이 내려와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외형상 전시체제의 형태를 띠게 된다. 경상우도 의병을 예를 들면, 초유사 김성일의 통제 하에 김면, 곽재우, 정인홍 등 3명의 의병 대장이 대체로 담당 구역을 나누어 자기가 담당할 군현의 군사를 통합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전시체제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⁴⁵⁾ 그리고 의병 조직의 내부 모습도 김면 군의 의병 조직을 예를 들면, 의병장 김면 아래에 참모장, 선봉장, 복병장, 돌격장, 좌부장, 우부장 등 여러 직책을 두었는데 거창현감, 체포만호, 김해부사, 지례현감 등 현직 관리 다수가 이 직책에 참여하고 있었다.⁴⁶⁾ 그리고 다음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인홍은 작전에 태만한 성주목사와 고령현감을 잡아다 매질하기도 했다.

호남의 임대장(임계영; 필자주)이 장졸 500여 명을 보내 성주의 적을 유인해 들에서 엄습하였다. 그리하여 거의 모든 적을 섬멸하였다. 그런데 성주목사 제말(諸洙), 고령현감 곽천성(郭天成)이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않아 좋은 기회를 가만히 앉아서 놓치고 성주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정대장(정인홍)이 크게 노해 성주목사와 고령현감에게 매를 때렸다.⁴⁷⁾

이와 같이 현직 관리를 군사 조직에 참여시키거나, 또 현직

43) 노영구, 앞의 논문, 2007, 44쪽

44) 『정만록 坤』, 7월 15일. “所謂義旅者 非如一家親戚奴僕 同盟決死之兵 不過散亡軍卒收拾之類” 정경운, 『고대일록』, 임진년 6월 14일. “官軍與義兵 均是國事 所謂盡心力而止耳 安有二路於其間哉 生等又收疲盡之卒 咨問山谷之間 募得數百餘人”

45) 노영구, 앞의 논문, 2007, 54쪽

46)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壬亂義兵史의 再照明』, 안동시, 2012, 126쪽.

47) 『고대일록』 12월 15일.

관리에게 매를 때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왕에 의해 임명된 전시체제의 지휘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⁴⁸⁾ 즉 김면, 정인홍은 의병 대장이지만 또한 전시체제 지휘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상도의 의병은 전시체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왜적을 몰아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와 경상우도의 방어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라도는 왜적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지 않아 평시체제가 온존할 수 있었다. 이에 전라도는 평시체제로써 왜적을 방어하였다. 반면 경상우도는 왜적의 침략을 직접적으로 받아 평시체제와 전시체제가 모두 붕괴하였다. 이에 의병들이 나서 전시체제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왜적을 퇴치하였던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경상우도의 상황을 성주 지역을 예로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3. 『난중잡록』 을 통하여 본 성주 전투

성주 지역의 전투와 관련해서 일찍이 이형석이 그의 책 『임진전란사』에서 1차, 2차, 3차 성주성 전투로 3분하여 서술한 바 있다.⁴⁹⁾ 이후 성주 전투를 다룬 다른 책이나 논문에서도 대체로 이형석의 3차 구분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이형석은 1차 성주성 전투는 1592년(임진년) 8월 21일에, 2차 성주성 전투는

48) 1592년 4월 17일 국왕 선조는 신립을 삼도순변사에 제수하면서 “이일(李鎰) 이하 그 누구든지 명을 듣지 않는 자는 경이 모두 처단하라. 중외의 정병을 모두 동원하고 자문감(紫門監)의 군기를 있는 대로 사용하라.(『宣祖實錄』 26, 선조 25년 4월 17일(丙午))”라고 말하듯이, 전시체제의 지휘관은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49) 이형석, 『壬辰戰亂史』 中卷, 「제Ⅱ편 壬辰·癸巳 作戰期」,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482~605쪽.

9월 10~11일에, 3차 성주성 전투는 12월 7~14일에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 성주 전투는 이렇게 3차례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후술하듯이 수많은 전투가 있었다. 또 이형석의 『임진전란사』는 초창기의 연구서이다 보니 내용상 많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1차 성주성 전투에 의병장 임계영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임계영은 10월 중순에나 성주에 들어오므로 명백한 오류이다. 이처럼 이형석의 『임진전란사』에는 수많은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상북도에서 편찬한 『경북의병사』 50)나 『성주군지』 51) 등에서는 대체로 『임진전란사』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형석의 1차, 2차, 3차 성주 전투 구분법은 위에서 제시한 책뿐만 아니라, 성주 전투를 다룬 여러 논문들에서도 준용하고 있다. 「경상우도 임진의병의 전적 검토 - 김면·정인홍 의병군단을 중심으로」 52)라는 논문에서는 성주 전투를 1차(8/19~8/20), 2차(12월 14일경)로 구분하고 있고, 또 「1592년 성주전투와 일본군의 동향」 53)에서도 이형석의 1차, 2차, 3차 구분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런데 『난중잡록(亂中雜錄)』, 『정만록(征蠻錄)』, 『고대일록(孤臺日錄)』 등 당시의 기록물을 살펴보면 성주 전투가 3차례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전투가 있었다. 임란 당시의 기록물 중 조경남의 『난중잡록』은 이순신의 『난중일기』, 유성룡의 『징비록』과 더불어 임진왜란 3대 역사서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54) 『난중잡록』은 경상도 감영에서 전해진 「경상순영록」을

5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慶北義兵史』, 경상북도, 1990.

5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성주군지편찬위원회 편, 『星州郡誌』, 경상북도, 1996.

52) 정현재, 「慶尙右道 壬辰義兵의 戰跡 검토 - 金沔·鄭仁弘 의병군단을 중심으로」 『慶南文化研究』 17, 1995.

53) 신윤호, 「1592년 성주전투와 일본군의 동향」 『임진왜란과 전라좌의병』, 보고서, 2011.

54) 정구복, 「『난중잡록』과 전라좌의병」 『임진왜란과 전라좌의병』, 앞의 책.

이용하여 일본군의 침략과 그에 대한 항쟁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하여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난중잡록』을 중심으로 성주 전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지 열흘만인 4월 23일에 일본군은 성주로 들어오게 된다. 『난중잡록』 4월 23일 조에는 “가운데 길[中道]로 침입해 오는 왜군은 인동을 불태워 버렸고, 오른쪽 길[右道]로 오는 왜군은 현풍에서 길을 나누어 낙동강을 건너서는 성주를 불태워 버리니, 성주 관관 고현(高峴)은 도망쳐 달아났고, 목사 이덕열(李德悅)이 겨우 몸만 살아남아서 끝까지 고을을 지켰다. 왜적이 성안으로 들어와 점거하고 있으면서 목사를 가칭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피어 모으자 궁박해진 백성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 왜적에게 항복하고 부동하는 자들도 많았다.”⁵⁵⁾라고 서술되어 있다. 『정만록』에는 이때 장졸(將卒)들은 왜적이 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뿔뿔이 흩어지고 적이 경내에 들어오기도 전에 집을 비우고 달아났다고 한다.⁵⁶⁾ 성주에 들어온 일본군은 잔혹하기가 조령으로 간 적보다 더 심하였다고 하고, 또 성주의 중 찬희(瓊熙)라는 자는 적중(賊中)에 들어가서 왜장과 글로써 응답하고는 군사를 모아 환자곡(還上穀)을 분급하고, 일주(一州)의 권한을 마음대로 하였다고 한다.⁵⁷⁾

『난중잡록』 6월 6일 조에는 “왜적이 창녕·현풍으로부터 김산(김천의 옛 지명)에 이르는 한줄기의 큰길을 닦고 위아래에 가득 차 있었다. 그 중간에 위치한 성주는 창고는 가득 차고 백성은 많아 왜적은 큰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었다.”⁵⁸⁾라고 적혀있다. 이

55) 『국역 대동야승 VI』 제26권, 「난중잡록 1」, 임진년 4월 23일, 341쪽.

56) 이탁영, 『역주 정만록』, 「征蠻錄 坤」, 의성군, 2002, 239쪽.

57) 앞의 책, 242쪽.

58) 『고대일록』(정경운 지음, 문인채 외 옮김, 서해문집, 2016), 기사년 2월 5일 조에서 정경운은 “성주목사 이덕열이 범같이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봄이 되면 거둬들이기를 독촉해 곡식을 산더미같이 쌓아 두었다. 마침내는 쌓아 둔 곡식을 왜노에게 약탈당했으니 이덕열의 죄가 왜적과 무엇이

에 정인홍이 손인갑에게 “무계59)의 왜적이 현풍과 성주 사이에 끼어서 왕래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있으니 반드시 이 왜적을 먼저 제거해서 강 길을 끊어 놓은 후에야 성주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5월 27일 군사행동을 시작하여 6월 4일 밤에 진군하였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⁶⁰⁾ 성주성 회복을 위한 최초의 시도로 보인다.

『난중잡록』 6월 17일 조에는 손인갑이 사원동(성주 남쪽 20리에 있음)에 복병을 매설했다가 불리하여 퇴각한 기록이 실려 있다. 성주와 현풍의 왜적이 강줄기를 따라 목책을 설치하고 약탈한 짐을 운반하기 위해 강으로 떠내려 보내므로, 손인갑은 복병을 매설하여 이것을 습격하고자 김면에게 군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손인갑이 독자적으로 사원동에 복병을 매설하여 성주의 왜적 300여 명과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패배하고 박응성이 전사하였다.⁶¹⁾ 이 전투는 『연려실기술』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⁶²⁾, 또 김면과 정인홍의 두 군사가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최초의 본격적인 성주 전투라 할 수 있다.

『난중잡록』 6월 19일 조에는 성주 주부 배설(裴榘)이 성주의 가장(假將)이 되어 군사 수백 명을 모아 복병을 매설하여 왜적의 통로를 차단하고 목 벤 수효가 많아 포상되어 합천군수로 승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의 부친 전 군수 배덕문(裴德文) 역시 왜적에 붙잡힌 중 찬희(瓚熙)를 잡아 목 베어 상으로 판사의 직을 받았다. 비록 성주성은 왜적에 점거되었지만 민족 반역자는 즉시 처단하는 것으로 보아 성주 사족들의 민에 대한 통제력은 놓치지

다른가?”라고 성주목사 이덕열을 질타하고 있다.

59) 무계는 달성군 현풍 서쪽에 위치하여 낙동강에서 성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서 교통의 요지이자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60) 『국역 대동야승 VI』, 「난중잡록 1」, 임진년 6월 6일, 403~404쪽.

61) 『국역 대동야승 VI』, 「난중잡록 1」, 임진년 6월 6일, 412쪽.

62) 『국역 연려실기술IV』 제16권, 「선조조 고사본말, 임진왜란 때의 의병」, 민족문화추진회, 1988, 179쪽.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만록』 6월 28일 조에는 성주 가장(假將) 배설이 북병장(伏兵將) 허후형이 왜적 1명을 참두(斬頭)(斬頭)하였고, 성주 가리현 북병장 이응량이 왜적 1명을 사참(射斬)하였다고 치보하고 있다.⁶³⁾ 이와 같이 성주를 수복하기 위해 성주의 관민(官民)들은 6월부터 끊임없이 왜적을 공격하고 있었다.

또 『난중잡록』에 의하면 6월에 경상도 고령 선비 박정완(朴廷琬)이 장사 4백여 명을 모집하여 강기슭에 북병을 설치하고, 사재를 기울여 군량을 구입하여 활과 화살을 준비하여 창녕(昌寧)·현풍(玄風)·성주(星州)에 왕래하며 충돌하는 적들을 많이 잡았다고 한다. 그리고 또 배를 수선하고 수장(水杖)을 설치하여 강을 타고 내려오는 적을 막았다. 김면(金沔)이 무계에서 승첩한 것은 실로 박정완의 힘이 컸는데 박정완은 공을 나누는 데는 참여하지 못했으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애석히 여겼다고 한다.⁶⁴⁾

『난중잡록』의 저자 조정남은 “김면이, 박정완이 왜적의 배를 노획하고 80여 급을 목 벤 공을 억눌러 나타내 주지 않았고, 손인갑(孫仁甲)이 사원동(蛇院洞)에서 북병을 쓴 작전을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그가 여러 사람의 모의를 어기고 패군 했다는 죄로 몰아넣었으니, 진실로 공(功)을 시기하여 모함한 흔적이 있음을 면할 수 없다.”라고 김면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⁶⁵⁾

『난중잡록』 7월 9일 조에는 합천 의병대장 정인홍과 가장(假將) 김준민이 군사 2,800명을 거느리고 안언⁶⁶⁾의 적을 공격하여 다 섬멸한 전투가 기록되어 있다.⁶⁷⁾ 이때 400여 명의 왜적이 무계로부터 성주로 향하여 소, 말 백여 바리에 짐을 싣고 오는 것을 김준민과 정방준이 사수(射手) 천여 명을 거느리고 매복하

63) 이탁영, 『역주 정만록』, 앞의 책, 303쪽.

64) 『국역 대동야승 VI』, 「난중잡록 1」, 임진년 6월, 454쪽.

65) 『국역 대동야승 VI』, 「난중잡록 1」, 임진년 6월 3일, 393쪽.

66) 안언(安堰)은 성주군(星州郡) 용암면(龍巖面) 상언동(上彦洞)에 있었다.

67) 『국역 대동야승 VI』, 「난중잡록 1」, 임진년 7월 9일, 467~469쪽.

였다가 말을 달려 산을 내려가 일시에 활을 발사하여 왜적을 공격하였는데, 왜적의 죽은 시체가 서로 잇대고 흐르는 피가 들판에 가득할 만큼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 전투는 『연려실기술』과 『내암집』에도 실려있다. 『내암집』에서는 이 전투에 대해 “고령과 성주의 군대가 합세하여 안언역 옆에 복병을 설치하여 올라오는 적을 요격하였는데, 적을 거의 모두 죽였고 우마 140여 두를 빼앗았으며 군량과 기계, 화약 등의 물자는 그 수와 종류를 알 수 없었다. 그 당시의 보첩에 상세한 내용이 있다. 이것이 세 번째 큰 전투였다”⁶⁸⁾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이 전투는 정인홍이 치른 3대(大) 전투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형석의 『임진전란사』에는 이 전투가 기록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후의 여러 논문과 저서 등에서도 이 전투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 전투는 이후 왜적이 낙동강을 오르내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성주 전투 중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난중잡록』 8월 3일 조에는 김면이 지례에 둔친 적을 토벌하여 거의 다 태워 죽인 기록이 있다. 이 때 전라도의 아름다운 여자들이 적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것을 함께 다 태워 죽이고, 우리 측 군사도 50여 명이 죽었다고 한다.⁶⁹⁾ 남은 적들이 도망하여 성주로 향했는데, 성주의 군사들이 이들을 무찔러 남김없이 멸하였다고 한다. 한편 『고대일록』 8월 19일 조에는 김면과 정인홍이 성주에 주둔한 왜적을 토벌하기 위해 각각 정예병 1천여 명씩을 거느리고 성주 남쪽 사대촌에 진을 치고, 8월 23일 성주성을 포위하여 공격하였으나 왜적 2천여 명의 반격에 의해 후퇴한 기록이 있다.⁷⁰⁾ 그런데 이 기록

68) 『내암집』 12권, 雜著, 遺與兒孫昌後看. “又請金俊民爲假將 與高靈·星州軍合勢 設伏於安彥驛旁 要擊上來賊 殺賊幾盡 奪牛馬百四十餘頭 軍糧器械火藥等物不知數目 詳在其時報牒 此三大戰也 自此三大戰之後 賊兵不得由江上下”

69) 『국역 대동야승 VI』, 「난중잡록 2」, 임진년 8월 3일, 502쪽.

70) 『고대일록』 8월 19일, 23일.

은 『난중잡록』 에는 보이지 않는다.

『난중잡록』 9월 조에는 정인홍이 김면과 세력을 합쳐 성주성을 공격한 기록이 있다. 이때 성주성 밖 5리에 진을 치고 왜적과 대진하고 있었는데,

김면이 배설(裴穢)을 시켜 부상현(扶桑峴)에 매복을 시켜 개령(開寧)에서 응원하러 오는 적을 방비하게 하였다. 배설이 응낙하고는 물러나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 서생에게 절제(節制)를 받아서 그를 위해 중로에 매복한다는 말인가.” 하고 드디어 가지 않았다. 이날 밤에 성주의 적이 개령에 달려가서 급함을 알리매 개령의 적이 크게 왔는데도, 우리 군사들이 알지 못하고 이튿날에야 바야흐로 성을 지킬 기구를 준비하였다. 응원하는 적이 불시에 크게 이르러 학익진(鶴翼陣)을 치고 에워쌌으며 성중의 적 또한 성문을 열고 앞뒤에서 공격하였다.⁷¹⁾

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정인홍과 김면의 연합군이 크게 패배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우순찰사 김성일은 자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전투를 치렀다고 하여 합천 의병군관을 잡아다 곤장을 쳤다고 한다. 이 전투가 이형석의 『임진전란사』에서 임진년 9월 10~11일에 전개되었다는 제2차 성주성 전투로 보인다.

『난중잡록』 10월 18일 조에는 “성주·개령에 점거한 적이 더욱 치성하므로 관군과 의병이 연달아 싸워 불리하다. 본도의 감사와 모든 의병장이 여러 번 체찰사에게 보고하여 간절히 구원병을 청하였더니, 정철이 운봉 현감 남간(南侃)과 구례 현감 이원춘(李元春) 등을 영장(領將)으로 삼아서 본도의 관군 5천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개령·성주의 전투를 돕게 하다. 남간 등이 해인사(海印寺)에 진군하여 영남의 여러 장수들과 협력하여 성주성을 치다가 크게 패하여 돌아왔는데 죽은 자가 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전투는 이형석의 『임진전란사』에서 서술하고 있는 제1차 성주성 전투(임진년 8월 21일)와

71) 『국역 대동야승 VI』, 「난중잡록 2」, 임진년 9월, 536쪽.

그 내용이 유사하다.

『난중잡록』 계사년(1593) 5월 24일 조에는 임진년 10월 18일부터 성주에서 전개된 전라 좌의병장 임계영의 활동에 대하여 도체찰사 유성룡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임계영이 이끄는 전라 좌의병은 정인홍의 요청에 의해 성주에 와서 10월 18일에는 부장 장윤이 왜적의 머리 2개를 베고, 10월 20일에도 머리 2개를 베고, 11월 3일에 머리 8개를 베고, 11월 22일에 또 싸우고, 12월 2일에 또 싸우고, 12월 7일에 왜적 5명을 즉사시켰다. 그리고 임계영은 12월 10일 정인홍과 관군 여러 장수와 만나 4일 후에 성주성을 공격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뒤 우리 군사들이 약속대로 4일 후에 만나 종일토록 왜적과 죽도록 싸워서 들판과 큰길에 모두 핏빛이 되었으며 성 밑에 쌓인 송장이 언덕과 같았습니다. 우리 군사들이 왜적의 머리를 베려고 앞 다투어 성 밑으로 달려갔더니, 궁지에 몰린 왜적이 죽음을 무릅쓰고 반격하여 우리 용사 10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장 또한 말이 피곤하여 달리지 못하므로 말에서 내려 걸으면서 용맹을 떨쳐 돌입하여 한 화살에 한 놈씩 죽인 것이 수를 헤아릴 수 없자, 적이 그제야 물러나 달아났습니다. 흥한 놈들 중에 죽은 자가 3분의 2는 되었는데 한창 싸울 때에 쏘아 맞히고 쏘아 죽인 것은 날날이 들 수도 없으니, 성주의 수복이 꼭 그날에 있게 되었는데, 이 도의 모든 장수들이 약속을 배반하고 응원하지 않았으니 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⁷²⁾

그러나 위 인용문과 같이 임계영이 이끄는 전라좌의병은 종일토록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현지의 관군과 의병이 약속을 어겨 성주성 탈환에는 실패하였다. 정경운의 『고대일록』을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인홍이 성주목사와 고령현감을 징벌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⁷³⁾ 이 전투가 이형석의 『임진전란사』에서 서술하고 있는 제3차 성주성 전투(임진년 12월 7~14일)이다. 그러나 임계

72) 『국역 대동야승 VI』, 「난중잡록 2」, 계사년 5월 24일, 639쪽.

73) 『고대일록』 12월 15일.

영의 성주성 전투는 12월 7~14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10월 18일부터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후 『난중잡록』 기사년 1월 15일 조에는 “성주의 적이 군사를 철수하여 퇴각하여 내려가므로 연로(沿路)에 있던 호남·영남 여러 군사가 본성에 들어가 점거하다.”⁷⁴⁾라고 서술하여 성주성의 수복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주 전투는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3차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성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18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가 성주 지역에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전투는 주로 정인홍, 김면, 손인갑, 배설, 박정완, 김준민, 임계영 등 의병장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 의병장들은 일본군의 기습 침략으로 경상도의 평시체제와 전시체제가 붕괴되었을 때 스스로 펼쳐 일어나 전시체제를 형성하여 일본군을 퇴치하였다. 18차례의 성주 전투는 그 역사적 증거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전기 평시체제·전시체제 운영과 이에 따른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와 경상우도의 방어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난중잡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성주 전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은 위화도 회군이라는 군사 쿠데타를 계기로 성립한 나라이다. 이에 조선의 역대 국왕들은 군사 문제에 대단히 예민하였다. 특히 태종은 병권을 권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국왕이 병권을 확고히 독점하기 위해 사병제를 혁파하고 공병제를 확립하였으며, 장군과 군인 간의 사적인 관계를 제도적으로 철폐하려 하였다. 그리고 이후 조선 정부에서는 군대를 평시체제와 전시체

74) 『국역 대동야승 VI』, 「난중잡록 2」, 기사년 1월 15일, 629쪽.

제로 나누어, 평시체제의 지휘관은 전시에는 자신이 평소에 선발하고 훈련한 군대를 지휘할 수 없고, 중앙에서 별도로 임명한 지휘관으로 하여금 그 군대를 통솔하도록 하였다. 이에 전시체제 지휘관은 전시에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군인들을 데리고 전장에 나서야 했다. 그리고 전시체제 지휘관에는 국왕이 가장 신임하는 대신이 임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시체제를 유성룡이 ‘제승방략’이라고 잘못 칭하면서 오해가 발생하였다. 즉 그는 진관체제가 변하여 제승방략이 되어 임진왜란 초기에 패배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오해였다. 진관체제는 평시체제로서 제승방략이라고 말한 전시체제와는 차원이 다른 체제였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초기 방어 체제와 관련하여 복상하는 일본군을 피해 정신없이 피난 가는 조정으로부터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전라도와 경상우도의 대응 태세는 사뭇 달랐다. 전라도는 평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로써 전시 상황에 대처하였다. 원래는 평시체제의 지휘관이 전시에 자기 휘하의 군대를 통솔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전시체제의 지휘관을 내려 보내지 않자 평시체제의 지휘관인 전라감사가 전라도 진관군사들을 직접 통솔하였던 것이다. 이에 전라감사 이광은 전라도 군사를 이끌고 용인까지 복상하여 왕명을 기다리다가 전투에서 패배를 겪기도 하지만, 다시 전라도 지역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관할 군사를 거느리고 일본군의 진입을 격퇴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경상도에서는 임진왜란 초기 전투에서 평시체제와 전시체제가 모두 붕괴됨에 따라 각처의 사족들이 의병장이 되어 산졸(散卒)들을 수습하여 왜적 퇴치에 나섰다. 그런데 이러한 의병 조직은 전시체제와 유사한 형태를 띠었다. 즉 정부에서 파견된 전시체제의 지휘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병장들이 전시체제의 지휘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왜적을 퇴치하였던 것이

다. 경상우도의 예를 들면, 김면, 광재우, 정인홍 등 세 명의 의병 대장이 담당 구역을 나누어 해당 군현의 군사를 통합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전시체제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의병 조직의 내부 모습도 의병장 아래 참모장, 선봉장, 복병장, 돌격장, 좌부장, 우부장 등 여러 직책을 두었는데, 현직 관리가 이 직책에 참여하고 있었다. 즉 전라도는 평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란에 대처하였고, 경상우도는 변형된 전시 체제를 갖추어 왜적에 대항하였던 것이다.

성주 전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이형석의 『임진전란사』에 따라 3차례 전투가 있었다고 알려져 왔다. 성주 전투를 다룬 책이나 논문에서도 대체로 3차례 성주 전투가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난중잡록』을 살펴보면 성주 전투는 3차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성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무려 18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가 전개되었다. 이 와중에 수많은 의병들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주성에서 일본군을 몰아내었다. 그런데 성주 전투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에서는 전라도처럼 평시체제의 관군이 아니라 의병들이 중심이 되어 왜적을 퇴치하였다. 즉 경상도는 전라도보다 의병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상도에서는 평시체제와 전시체제가 모두 붕괴한 면도 있지만, 전라도보다 사족간의 결속력과 사족들의 민에 대한 지배력과 통솔력이 강하였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

(원고투고일: 2019. 2. 28, 심사수정일: 2019. 4. 25, 게재확정일: 2019. 5. 7)

주제어 :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 전라도 방어, 경상우도 방어, 성주 전투, 평시체제, 전시체제, 난중잡록, 의병

<참고 문헌>

『朝鮮王朝實錄』 『亂中雜錄』 『燃黎室記述』 『懲毖錄』 『壬辰錄』 『寄齋
史草』 『征蠻錄』 『龍蛇日記』 『孤臺日錄』 『壬亂日記』 『來庵集』

- 이형석, 『임진전란사』,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 최영희, 『임진왜란중의 사회동태-의병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원, 1975.
-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체제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 송정현, 『조선사회와 임진의병 연구』, 학연문화사, 1998.
- 김강식,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해안, 2001.
- 조원래, 『임진왜란과 호남지방의 의병항쟁』, 아세아문화사, 2001.
- 조원래, 『새로운 관점의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 임진왜란사연구회, 『임진왜란과 전라좌의병』, 보고서, 2011.
-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임란의병사의 재조명』, 안동시·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2.
- 전북사학회 편, 『임진왜란 용치전투와 이치전투』, 전라북도 완주군, 2017.
- 고석규, 「내암 정인홍의 의병활동」 『남명학연구』 2, 1992.
- 김종수, 「16세기 감사의 소멸과 정병입역의 변화」 『국사관논총』 32, 1992.
- 정현재, 「경상우도 임진의병의 전적 검토 - 김면·정인홍 의병군단을 중심으로」 『경남문화연구』 17, 1995.
- 김종수, 「I-4. 군역제도의 붕괴」 『한국사』 28, 국사편찬위원회, 1996.
-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 『한국문화』 31, 2003.
-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 『역사와 현실』 64, 2007.
- 하태규,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방어」 『한일관계사 연구』 26집, 2007.
-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군사』 77, 2010.
- 김진수,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양상에 대한 검토」 『군사』 84, 2012.

- 하태규, 「임진왜란 초 호남지방의 실정과 관군의 동원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16권 2호, 2013.
- 신윤희, 「임진왜란기 성주전투와 일본군의 동향」 『역사학연구』 53, 2014.
- 김경태, 「임진전쟁 초기 이광의 활동과 용인전투에 대한 재고」 『사총』 89, 2016.
- 김종수, 「임진왜란 초기 방어실태와 용치·이치 전투」 『전북사학』 51, 2017.

<Abstract>

The Status of Defense at the Initial Period of Imjin-War(壬辰倭亂) and the Seongju (星州) Combat

Kim, Jong-soo

As Chosun was a country founded with the military coup caused by Wihwado(威化島) Retreat as a chance, the kings of the country throughout the history were quite sensitive about the employment of the military. Particularly, Taejong(太宗) regarded military power as the source of authority and abolished the private military system but established the public one in order to make the king's monopoly of the military power firmly, and he also abolished the private relations between the general and soldiers. Later, Chosun government divided the military organization into peace and war footings and did not allow the commander of the peace footing to lead the military that he had selected and trained himself during the war and allowed the commander appointed additionally by the center to command the military.

Concerning the defense system at the initial period of Imjin-war, Jeolla-do(全羅道) and Gyeongsangwu-do(慶尙右道) dealt with it quite differently. Jeolla coped with the wartime situations while maintaining the peace footing. Originally, the commander of the peace footing was not allowed to lead the military under his command during the war. In the urgent situation, however, as the government did not send the commander of the war footing, Jeolla's governor, the commander of the peace footing, did command and control the troops and soldiers. In Gyeongsangwu-do, however, as

both peace and war footings collapsed at the early period of Imjinwaeran, sajok(士族) from all different places became the forces leader and collected the scattered soldiers to go out to drive away the Japanese invaders. Yet, that forces organization was similar to that of the war footing.

About the Seongju(星州) Combat, it has been known that it took place three times, but according to 『Nanjungjaprok(亂中雜錄)』, those three times were not all. To recover Seongju Seong(星州城), either large or small combats had developed up to 18 times. In the meantime, a lot of righteous armies were sacrificed. The righteous armies' activity was even more noticeable in Gyeongsangwu-do than in Jeolla-do. As one of the reasons for that, we can point out the fact that peace and war footings both collapsed in Gyeongsang and also solidarity among sajok(士族) and their control over the people were stronger there than in Jeolla.

Key words : The Status of Defense at the Initial Period of Imjin-war(壬辰倭亂), The defense system of Jeolla-do(全羅道), The defense system of Gyeongsangwu-do(慶尙右道), The Seongju (星州) Combat, The peace footing, The war footing, Nanjungjaprok(亂中雜錄), Righteous armies(義兵)